

김기림의 「午前의 詩論」 연구*

배 호 남 (초당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시적 기법으로서의 '새타이어' |
| 2. 시적 태도로서의 '건강성' | 4. 결론 |

국문초록

1935년은 김기림의 문학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이 해에 발표된 시론들 중 주목을 요하는 것이 『朝鮮日報』에 연재된 「午前의 詩論」이다. 김기림은 「午前의 詩論」을 통해 이전의 무비판적인 서구 모더니즘 이론의 수용을 벗어나 1930년대 식민지 현실과 관계하는 그만의 독자적인 시론을 모색했다. 김기림은 1930년대 내내 서구 중심의 보편적 근대성에 대한 추구로 일관했던 모더니스트이다. 그는 1930년대 시문학이 극복해야 할 전통으로 20년대의 낭만주의의 센터멘탈리즘과 프로문학의 편내용주의를 내세웠다. 「午前의 詩論」을 통해 김기림이 발전시킨 독자적인 시론의 핵심은 바로 시적 태도로서의 '건강성'과 시적 기법으로서의 '새타이어'이다. '건강성'은 그가 이전 시단의 낭만주의자들과 프로 문인들의 공통된 문제점이라 여겼던 '감상적 낭만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력이었고, '새타이어'는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문명비판 시에 적합한 기법이었다.

* 본 논문은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66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논문으로 완성한 것임.

주제어 : 김기림, 「午前の 詩論」, 근대성, 감상적 낭만주의, 전체시론,
기교주의 논쟁, 건강성, 새타이어

1. 서론

1935년은 김기림의 문학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이 해에 그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시론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으며, 그의 최초의 長詩 「氣象圖」를 연재하기도 했다. 이 해에 발표된 시론들 중 주목을 요하는 것이 『朝鮮日報』에 연재된 「午前の 詩論」이다. 김기림은 「午前の 詩論」을 통해 이전의 무비판적인 서구 모더니즘 이론의 수용을 벗어나 1930년대 식민지 현실과 관계하는 그만의 독자적인 시론을 모색했다. 「氣象圖」는 이러한 이론적 모색을 長詩라는 새로운 시 형식으로써 구현한 것이다. 「午前の 詩論」의 연재기간이 1935년 4월부터 10월이며 「氣象圖」의 연재기간이 동년 5월부터 12월임을 감안하면,¹⁾ 김기림이 「午前の 詩論」과 「氣象圖」를 동시에 기획하고 집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5년에 들어서 김기림 시론의 가장 큰 변화는 우선 그가 이전에 비해 “現實에 적극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1935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朝鮮日報』에 연재된 「新春의 朝鮮詩壇」에서 김기림은 巴人の ‘민요부흥론’을 비

-
- 1) 「午前の 詩論」과 「氣象圖」의 연재 시기와 지면은 다음과 같다.
「午前の 詩論」(제1편 기초론) - 『朝鮮日報』, 1935. 4. 20. ~ 5. 2.
「午前の 詩論」(기초편 속론) - 『朝鮮日報』, 1935. 6. 4~20.
「午前の 詩論」(기술편) - 『朝鮮日報』, 1935. 9. 17. ~ 10. 4.
「氣象圖」1 - 『中央』 3(5), 1935. 5.
「氣象圖」2 - 『中央』 3(7), 1935. 7.
「氣象圖」3 - 『三千里』 7(11), 1935. 11.
「氣象圖」4 - 『三千里』 7(12), 1935. 12.

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詩人은 단순히 남을 위하여 쓰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자기를 위하여 쓴다. 그의 길은 인생에서 진리를 붙잡으려는 부단의 정진 속에서만 뚫려 있다. 詩人이 자기를 통하여 싸워 서 있는 진리 -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문화에 불멸의 광채를 더하며 따라서 그 시대 또는 다음 시대의 자손을 비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정직한 詩人이면 詩人일수록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교를 가장하고 시를 쓸 수는 없다.

그것이 가능한 길은 오직 하나 있다. 즉 그가 가지고자 원하는 감정이나 사교의 소유자인 사람들의 **생활**, 그 속에 詩人이 自身の **생활**을 파묻는 때이다. 감정과 사교는 항상 **생활**의 발로다. 그 때에는 벌써 그것은 가장이 아니고 現實이다.(강조 인용자)²⁾

위의 인용에서 김기림이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실제 민중의 생활에 육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 속에서 오로지 “그 생활을 假裝하는” 데에 그치고 마는 소위 ‘민중주의자’(김기림 자신은 “편의상 이렇게 명명해 둔다”³⁾)라고 썼지만, 이 ‘민중주의자’들은 카프 계열의 경향파 시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들이다. 김기림이 보기에 1930년대 중반의 조선 시단의 위기는 시인들이 실제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假裝과 技巧”의 흉내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가장과 기교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김기림은 동년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朝鮮日報』에 「詩에 있어서의 技巧主義의 反省과 發展」을 연재하게 된다. 이 글에서 김기림은 “이미 그 역사적 의의를 잃어버린 偏向化한 기교주의는 한 전체로서의 시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⁴⁾라고 하여, 그의 ‘전체시론’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그 윤곽만을 알 수 있던 ‘전체시론’은 이후 「午前의 詩論」을 통해 하나의 시론으로 구체화된다.

1935년에 김기림이 저술한 시론과 시, 즉 「詩에 있어서의 技巧主義의 反

2) 김기림, 『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98, 358면.

3) 앞의 책, 359면.

4) 앞의 책, 99면.

省과 發展」, 「午前的 詩論」과 「氣象圖」에 대해 임화는 동년 12월 『신동아』에 「曇天下의 詩壇 一年」을 쓰면서 이의를 제기한다. 임화는 김기림의 전체시론이 “인텔리겐차의 과분한 주관적 과신”⁵⁾이며, 김기림의 ‘지성’이 행동의 차원이 아닌 현실 인식의 차원에 머무는 한 진정한 문명 비판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 김기림은 「詩人으로서 現實에 積極關心」(『朝鮮日報』, 1936. 1.)으로 답하였으며, 임화는 「技巧派와 朝鮮詩壇」(『中央』, 1936. 2.)에서 다시 한 번 김기림의 전체시론을 비판하게 된다. 이 논쟁이 김기림과 임화 사이에서, 이후에 박용철까지 가세하게 된 이른바 ‘기교주의 논쟁’이다. 이렇듯 「午前的 詩論」은 1935년 2월의 「詩에 있어서의 技巧主義의 反省과 發展」과 1936년 1월의 「詩人으로서 現實에 積極關心」 사이, 즉 ‘기교주의 논쟁’의 와중에서 김기림 시론의 변화과정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저술인 것이다.

‘기교주의 논쟁’을 통한 김기림의 목표는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 양자의 지양을 통한 ‘전체로서의 시’였으며, 경향파와 모더니즘의 종합은 전체시론의 또 다른 지향점이었다. 김기림은 전체시론에서 경향파의 사상과 모더니즘의 기법을 통합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시’라는 이상에 도달하려 했다. 그리고 1935년에 저술된 「午前的 詩論」은 이러한 전체시론의 단초를 마련했던 저술로 주목을 요한다.

지금까지의 「午前的 詩論」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1963년 간행된 『시학평전』에서 송옥은 김기림의 모더니즘에 대해 이후로 오랫동안 지속될 부정적 평가의 준거를 마련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사실 풍부한 文學의 傳統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詩人 엘리엇과 달라서 近代에 살 수 있는 傳統이 매우 빈약한 이 나라에서, 그것도 무턱대고 모더니즘(起林은 <이즘>을 매우 좋아한다!)의 詩를 쓰려고 한 起林이야말로 바로 <精神的 火田民>(나는 이 말을 精神的·文學的 傳統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의 뜻으로 사용한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起林의 詩와 詩論을 읽고 느끼는 것은 그가 時間意識, 그리고 이와 관계가

5) 임화, 「曇天下의 詩壇 一年」, 『신동아』, 1935. 12, 174면.

있는 傳統意識과 歷史意識을 <자기 작품 속에 具現할 만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내면성이나 정신성을 거의 모르는 詩人이고 비평가였다는 슬픈 사실이다.⁶⁾

송옥이 김기림을 두고 “전통을 모두 잃어버린 <정신적 화전민>”이라 칭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김기림 자신이 1935년 「氣象圖」를 연재하면서 늘 옆두에 두었던 T. S. 엘리엇의 「황무지」에 대한 비판에서 이 수사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찍이 20세기의 신화를 쓰려고 한 「荒蕪地」의 詩人이 겨우 **정신적 火田民의 신화**를 써놓고는 그만 구주의 초토 위에 무모하게도 중세기의 신화를 재건하려고 한 전철을 똑바로 보아 두었을 것이다.(강조 인용자)⁷⁾

엘리엇의 신고전주의는 근대 자본주의가 훼손한 가치를 전통에 기대어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신고전주의에 대해 “무모하게도 중세기의 신화를 재건하려” 했다는 평가는 1930년대 당시 김기림의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기에 송옥은 엘리엇에 대한 ‘정신적 화전민’이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김기림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그러나 송옥의 평가는 그가 가진 1960년대의 모더니즘 이해 수준에서 행해진 것이다. 김기림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의 척도는 그가 얼마만큼 서구의 모더니즘을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서구의 모더니즘을 당대 조선의 식민지 현실과 부딪혀 얼마만큼 문학적으로 구현했느냐에 있다. 이 ‘구현’의 문체에 있어서도 송옥은 김기림이 “傳統意識과 歷史意識을 <자기 작품 속에 具現할 만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면성이나 정신성을 갖지 못했다고 평했다.

김윤식은 1984년의 「전체시론」⁸⁾에서 송옥의 이러한 평가가 영미시의 결

6) 송옥, 『시학평전』, 일조각, 1963, 186면.

7) 김기림, 「과학과 비평과 시」, 앞의 책, 33면.

8) 김윤식, 「전체시론」,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함을 대표하는 I. A. 리차즈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이룩되었음을 지적하고, “우리 문학사의 문맥”을 기준으로 하여 “김기림의 시에 대한 독자적 최종견해로 표명된 전체시론을 검토”⁹⁾했다. 이 연구에서 김윤식은 김기림의 ‘전체시론’이 경향시와 모더니즘시의 단순한 산술적 종합에 그친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윤식은 김기림의 시론을 당대의 시각으로 파악하려 했고 특히 기교주의 비판에 있어서 임화와의 영향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송옥의 비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서준섭은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¹⁰⁾에서 임화와 김기림 사이의 논쟁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구도로 파악했다. 그는 김기림에 대해 “비평이 이론적인 일관성을 결하고 이중성을 띠고 있”¹¹⁾다고 지적하며 그 이중성은 “근대문명사회에 대한 지적 인식방법”이면서 동시에 “지적 통제에 의한 창작기술”¹²⁾이라 분석했다.

엘리어트가 「황무지」를 통해 모색한 서구 문명의 위기와 타락을 극복할 길은 종교적 전통, 즉 기독교적 질서의 회복이었다. 물론 이 회복의 길은 김기림이 이해했던 것처럼 “중세기의 신화”로의 무조건적 회귀는 아니었다. 그것은 근대가 훼손한 전통을 재창조하고 전유하는 일이었다.¹³⁾ 김기림은 이러한 엘리어트의 신고전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거부했다. 김기림은 엘리어트 식의 문명 비판을 통해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교정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근대 문명 자체가 이미 神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구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때문이다.¹⁴⁾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20세기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김기림은 “질서는 오직 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선사 이래의 낡은 전통에 선 세계상과 일상태도를 버리고 그 뒤에 과학 위에 선 새 세계상을 세우고 그것에 알맞은 인생태도를 새 ‘모랄’로서 파악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¹⁵⁾다고 믿었다. 그는 「午前의 詩論」을

9) 김윤식, 앞의 책, 455면.

10)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일지사, 1988.

11) 앞의 책, 201면.

12) 이창배, 『20세기 영미 시의 형성』, 민음사, 1979, 257면.

13) 김유중, 『한국모더니즘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90면.

통해 엘리엇의 「황무지」를 모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넘어서려 했다. 엘리엇가 「황무지」에서 구현했던 전통의식과 역사의식을 김기림은 그의 시작부터 가지지 못했으며, 그러한 전통의 부재가 곧 1930년대 우리 식민지 모더니즘이 처한 현실적 조건이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아무런 神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선가 새로운 시의 감각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다”¹⁵⁾라고 김기림은 말했다. 송옥의 지적처럼 김기림이 우리 식민지 문학사의 슬픈 시인이자 비평가인 이유는 그가 서구의 모더니즘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새로운 20세기의 신화’를 건설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김기림이 1935년에 「午前의 詩論」을 통해 집중적으로 시도했던 새로운 모더니즘 시론이 어떠한 의도로 기획되었고, 어떠한 이유로 실패하였는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시적 태도로서의 ‘건강성’

「午前의 詩論」에서 이전의 김기림 시론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시적 태도로서의 ‘건강성’에 대한 강조이다. 이러한 ‘건강성’에 대한 강조는 이전의 시단 분위기가 “탄식과 피로”에 차 있다는 김기림의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1934년 10월 15일에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어떤 親한 ‘시의 벗’에게」라는 시집 『태양의 풍속』 서문¹⁶⁾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4) 김기림, 앞의 책, 32면.

15) 앞의 책, 166면.

16) 김기림의 시집 『태양의 풍속』은 1939년 학예사에서 간행되었지만, 그 서문인 「어떤 親한 ‘시의 벗’에게」 말미에는 ‘1934년 10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으며, “이 책은 1930년 가을로부터 1934년 가을까지의 동안 나의 총망한 宿泊簿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태양의 풍속』이 1934년에 간행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이 시집의 간행이 5년간 미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의 진술로 미루어 『태양의 풍속』이 1936년 간행된 시집 『氣象圖』보다 먼저 준비된 김기림의 실질적인 첫 시집인 것으로 보인다.

歎息. 그것은 紳士와 淑女들의 午後の 禮儀가 아니고 무엇이나? 秘密. 어찌
면 그렇게도 粉바른 할머니인 十九世紀의 ‘비-너쓰냐? 너는 그것들에게서 지
금도 곰팡이의 냄새를 맡지 못하느냐?

그 肥滿하고 魯鈍한 午後の 禮儀 대신에 놀라운 午前的 生理에 대해야 驚嘆
한 일은 없느냐? 그 緊張한 아침의 體格을 부러워해본 일은 없느냐?

까닭모르는 우름소리, 過去에의 救援할 수 없는 愛着과 停頓. 그것들 음침한
밤의 迷惑과 眩暈에 너는 아직도 疲勞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魚族과 같이 新鮮하고 旗幟과 같이 活潑하고 표범
과 같이 大膽하고 바다와 같이 明朗하고 仙人掌과 같이 健康한 太陽의 風俗을
배호자.¹⁷⁾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午前的 詩論」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미 “午後の
禮儀”라고 칭하는 이전 시단의 시적 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부터 비롯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지적한 “午後の 禮儀”란 “十九世紀的” “곰팡이의 냄
새”가 나는 “歎息”이다. 이와는 반대로 김기림의 “午前的 生理”는 “건강한
아침의 체격”이다. ‘건강’과 ‘명랑’. 이 두 가지가 바로 「午前的 詩論」을 통
해 김기림이 추구하려했던 시적 태도이다.

“탄식”이 지시하는 것은 20년대 시문학의 감상주의이다. 김기림이 말하는
시의 건강성은 20년대의 시문학과 대비하여 내세운 표상적 개념이다. 김기림
은 시의 건강성이 우선 감상의 배경으로부터 얻어진다고 보았다. 김기림이
감상주의를 배격한 것은 20년대 詩의 특질이 낭만주의이건 편내용주의이건
본질적으로는 센티멘탈리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낭만주의자들은
‘자아와 개성의 강조, 절대적 세계에의 동경, 죽음의 찬미’ 등 자아중심적인
상상력에 머물렀고 프로문인들은 ‘주체의 단일성, 구성의 공식성, 사상의 관
념성’이라는 도식화된 문학만을 양산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은
어쩔 수 없이 감정의 비만으로 넘쳐 필요 이상의 슬픈 표정을 짓거나, 과잉
된 주제의식 속에서 작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투쟁의 도구로 떨어질 수밖에

17) 김기림, 『김기림 전집 1』, 15면.

이 부분은 김기림이 해방 후인 1948년 『詩論』을 간행할 때 수정해서 실은
「午前的 詩論」의 첫머리에 인용되어 있기도 하다.

없었다.¹⁸⁾ 이러한 ‘센티멘탈리즘’에 대한 거부를 김기림은 「感傷에의 叛逆」¹⁹⁾이라 명했다. 이 글에서 그는 ‘명량성’을 애매와 감상에 대립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기림에 따르면 “없는 의미를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애매성이며, “필요 이상으로 슬픈 표정을 하는 것”이 감상성이다. 주목할 것은 이 애매와 감상을 김기림이 특정 사조에 대입시키는 방식이다. 그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의 방향으로 보아서 ‘로맨티시즘’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센티멘탈리즘’과 대립하는 말인 것 같다. 문학의 태도로서는 ‘로맨티시즘’은 고전주의에 대립하는 것인가 한다”²⁰⁾고 하여 리얼리즘을 센티멘탈리즘에, 로맨티시즘을 고전주의에 대립시키고 있다. 이어서 김기림은 “‘로맨티시즘’은 ‘센티멘탈리즘’에서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20년대 시문학의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근원을 ‘센티멘탈·로맨티시즘’이라 진단한다. ‘감상적 낭만주의’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김기림은 낭만주의자들의 퇴폐성과 프로문인들의 도식성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적 낭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김기림은 ‘지성의 힘’을 내세웠다.

시(제작이 필한 작품으로서)는 애매성과 감상성을 배제함으로써 명량성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것은 詩人의 꾸준한 지적 활동에 의하여 얻을 수가 있는 일이다.

통제되고 계획된 질서 이외에 마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이 애매성을 가져온다. 또한 시를 감정에게 맡겨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감정은 늘 혼동하려고 하고 비만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감정의 비만이 다시 말하면 감상이다. 시를 이러한 비대중에서 건져내서 그것에게 ‘스파르타’인과 같은 건강한 육체를 부여하는 것이 오늘의 詩人의 임무다.²¹⁾

18) 강은교, 「1930년대 김기림의 모더니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62면.

19) 김기림, 「感傷에의 叛逆」, 『김기림 전집 2』(「現代詩의 肉體 - 感傷과 明朗性에 대하여」 『詩苑』, 1935. 4), 이 글은 「午前의 詩論」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935년 초, 즉 「午前의 詩論」 제1편 기초론을 쓸 때에 김기림이 이전 시단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글이다.

20) 앞의 책, 110면.

인용문을 통해 시의 건강성은 시인의 “지적 활동”에 의해 획득되는 근대성과 동일한 차원에 놓여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김기림에게 건강성이란 결국 근대성을 획득해가는 방법론의 결과로 얻어진 지극히 객관적인 지적 태도를 가리킨다.²²⁾ 그러나 이러한 지성의 힘에 대한 강조가 T. E. 홉이나 T. S. 엘리엇의 신고전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결론짓는 것은 곤란하다. 김기림은 신고전주의조차도 일종의 비건강성이라 여겼는데, 그 이유는 신고전주의가 ‘인간의 결핍’을 초래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김기림은 지성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의 문화가 “인간적인 것을 세척해 버리고 그 獨自의 세계로 증발”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신고전주의는 “문학에서 인간을, 육체를 완전히 쫓아내기를 기도하여 인간의 냄새라고는 도무지 나지 않는 ‘비잔틴’의 기하학적 예술”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신고전주의의 비인간성이 ‘빅토리아니즘’의 포화된 인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시작되었으나 결국에는 표면적인 현상에 그치고 말았으며, “오늘에 와서는 이 비인간성이야말로 고도로 발달된 근대문명 그 자체의 본질임”을 간과했다.²³⁾ 홉과 엘리엇의 신고전주의는 “인간성과 뚜렷하게 대립하는 근대문명의 ‘메카니즘’과 신통하게도 부합하는 설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고전주의는 “근대문명의 반영일지언정 비판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기림은 이러한 비인간성을 “한 개의 허무에의 발산”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무 속에서는 예술도 인간도 한 가지로 소실되고 말 것이라 경고했다.²⁴⁾

김기림이 신고전주의의 비인간성으로부터 한 개의 허무를 발견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마샬 버만은 『현대성의 경험』에서 이러한 비인간성의 허무를 근대성에 내재된 ‘니힐리즘’으로 파악했다. 버만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근대화는 그 맹목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들이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혼란의 어두운 부분이 바로 니힐리즘에 대

21) 앞의 책, 112면.

22) 강은교, 앞의 글, 63면.

23) 김기림, 「人間的 결핍」, 『김기림 전집 2』.

24) 김기림, 「고전주의와 浪漫主義」, 『김기림 전집 2』.

한 욕구이다.

부르주아의 모든 기념물의 파토스는 그러한 기념물의 물질적인 힘과 응집력이 실제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며 그 어떤 무게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그러한 기념물은 그 자체가 찬양하고 있는 자본주의 발전의 바로 그 힘에 의해서 연약한 갈대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리게 된다. …… 이후의 세대가 ‘니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될 부정부적이고 측정불가능하며 폭발적인 모든 욕구-니체와 그의 추종자들이 신의 죽음과 같은 범세계적인 충격으로 설명하게 되는 욕구-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시장경제라는 그럴듯한 진부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정착되었다. …… 마르크스의 이미지는 또한 어떤 순수한 경이로움의 의미를 수반해야 하는 것, 즉 공포의 의미를 표현했다. 왜냐하면 이처럼 경이적이고 마술적인 세계는 또한 악마적이고 끔찍스러우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난폭하게 뒤흔들리고 그러한 세계가 이동함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²⁵⁾

부르주아 혁명과 산업 혁명으로 시작된 자본주의적 근대화는 인간 지성에 대한 도구적 맹신으로 인해 이전 세대가 이루지 못한 세계상의 변혁을 이룩해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발전은 그 발전에 합당한 인간적인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였다. 발전의 가능성과 허무에의 욕구는 자본주의적 근대에 있어 동시적이기 때문이다. 신고전주의의 비인간성을 예술과 인간이 소실되는 허무의 지점으로 파악했다는 점은 김기림이 당대의 근대성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지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또한 초현실주의마저도 ‘문학의 장식’인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에겐 “현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꿈의 상태만을 인정한 초현실주의도 역시 ‘센티멘탈리즘’이었다.” 신고전주의나 초현실주의와 같은 모더니즘 사조에 대한 김기림의 비판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그가 자기 나름으로 근대성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문제는 김기림이 지성으로부터 비롯된 근대적 건강성을 동양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할 때 드러난다. 그가 보기에 20년대 시단의 문제점이었던 ‘감상적 낭만주의’와 지성의 결핍은 그대로 동양적인 것 일반에 나타나는 문제

25) 마살 버만, 윤호병 외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4, 152-154면.

의 본질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김기림은 동양의 전통적인 시론의 특질을 “일시적 감흥의 쓰레받기”에 지나지 않는 ‘감상적 낭만주의’에 불과하다는 선부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 너무나 비만한 정서가 있었다. 다음에 과잉된 주제의 횡행이 있었다. 압도된 흥분의 폭행이 있었다. 18세기적인 감정을 오늘도 오히려 19세기적인 모양으로 아무렇게나 노래 부르는 태평한 할미새도 있었다. 詩壇의 한 구석에는 이조 오백년의 꿈이 그대로 잠자는 평화한 마을도 있었다. 저 주책없이 늘어놓는 다변을 들었느냐. 이러한 너무나 비만한 병적인 육체들은 대체 어디서 그들의 지방질을 섭취하였던가. 그것은 결국 시는 일시적 감흥의 쓰레받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습을 골자로 한 낡은 詩論에서 그 불균형한 영양을 얻은 것이다.²⁶⁾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초 우리의 근대문학은 서구문학이 몇 세기에 걸쳐 통과해 온 근대성 발전 양상을 단 몇 십 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전통 회귀나 서구 지향이라는 상반된 특질들이 공시성을 띠고 혼재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김기림은 이러한 혼란을 식민지 근대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전통과 근대성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했다. 근대성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전통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근대적 전통에 대한 재창조라 할 때, 김기림은 새로운 근대성을 창조하려는 데 급급했을 뿐 어떠한 전통을 부정하고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가 “서양인의 ‘피아노’는 ‘키’가 수십 개나 되는데 동양인의 피리는 구멍이 다섯 개 밖에 아니된다”는 이유로 “동양인은 사물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지성이 결여”²⁷⁾되어 있다고 비판할 때, 이는 자민족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기보다는 서구적 관점에서 비롯된 매도에 가깝다. 김기림은 동양적인 것의 본질을 정적(情的)인 것으로 두고 이를 “퇴영적인 패배주의적 호소”로 간주함으로써, 그가 20년대 우리 시문학의 문제점이라 지적한 ‘감상적 낭만주의’를 동양적 전통 일

26) 김기림, 「동양인」, 『김기림 전집 2』, 161면.

27) 앞의 책, 162면.

반의 문제점으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김기림의 근대성 수용이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반성 없이 얼마만큼 서구 지향으로 경도되었던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午前の 詩論」에서 강조된 ‘건강성’은 감상성을 배격하기 위해 지성의 힘만을 맹신하는 시적 태도는 아니다. 비록 김기림이 동양적 전통에 대한 이해와 반성 없이 서구의 근대적 문학 사조들을 1930년대 우리 근대문학이 극복해야 할 전통으로 잘못 놓았더라도, 낭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를 거쳐 신고전주의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여러 문학 사조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론적 기준으로 ‘건강성’을 내세운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건강성은 결국 “지성과 인간성이 종합된 한 새로운” 체계, 즉 1930년대 후반 김기림 시론의 결과물인 전체시론을 형성한다. 김기림은 종합된 전체시론만이 “현대문명에 대한 능동적인 비판”을 가능케 하며 “현대문명의 발전의 방향과 자세를 제시하고야 말 것이다”고 믿었던 것이다.

3. 시적 기법으로서의 ‘새타이어’

시적 태도로서의 ‘건강성’이 역사 일반에 대해 관계할 때 ‘새타이어’라는 시적 기법이 나타난다. 김기림은 근대성이 시에 제공한 새로운 미학적 각도로 ‘시간’을 들고 있다. “여기에 또한 새로운 각도가 제시되었다. 시간이 그것이다. 어떤 사물이 끌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사물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²⁸⁾ 김기림은 시의 이해와 감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범주로 ‘시간’을 제시한다. “시간성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오늘의 시를 알 수 없다고 하는 무고들은 실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무모한 것이다.” 김기림은 이러한 시간성에 대한 주목을 ‘시간주의’라고 명한다. 그런데 이때의 ‘시간’은 탈역사적인 ‘공허하고 균질한 시간’이 아니라

28) 김기림, 「각도의 문제」, 『김기림 전집 2』, 169면.

실제의 “역사 위에 두는 견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적 시간성에 대한 미학적 강조를 위르겐 하버마스는 「근대의 시간 의식과 자기 확신 욕구」에서 근대성의 주요한 특질 중 하나로 보았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서구 철학은 헤겔에서부터 근대를 명확한 역사적 시간 개념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헤겔은 근대라는 개념을 무엇보다도 역사적 맥락에서 시기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새로운 시대 die neue Zeit>가 <근대 die moderne Zeit>라는 것이다. …… 오늘날 흔히 사용되고 있는 근세 Neuzeit, 중세, 고대 등의 구분은 <새로운> 시대 혹은 <近代>(〈새로운> 혹은 <近代> 세계)라는 표현이 단순한 연대기적 의미를 상실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라는 대항적 의미를 가지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근세라는 세속적 개념은 미래를 향하여 삶을 영위하는, 즉 다가올 새로운 것을 향하여 열려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 이미 헤겔이 당연하게 사용한 바 있는 역사라는 집합적 단수 또한 18 세기가 부각시킨 하나의 산물이다. <근세는 과거 전체에 하나의 세계사적 성질을 부여한다. 새로운 시대의 진단과 지나간 시대의 분석은 서로 대응한다.> 진보와 급속히 진행되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동시적인 발전의 연대기적 동시성에 대한 통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조 인용자)²⁹⁾

근대는 자기 시간성의 특질을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로 구분지음으로써 진보에 대한 믿음과 자기 확신의 욕구를 갖게 된다. 즉, 근대는 자신의 지향적 기준을 더 이상 다른 시대의 모델로부터 빌려올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근대는 자신의 규범성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창조해야 한다.>³⁰⁾ 이러한 근대성의 자기 지시성에서 헤겔은 <새로운 시대의 원리>로서 ‘주체성’을 발견한다. 근대성의 새로운 철학적 토대인 ‘주체성’은 이렇듯 근대를 역사적 시간성으로 파악하고 난 뒤에 가능했던 것이다. 주체성의 역할은 지나간 시대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를 진단하는 것, 근대 세계의 우월성과 위기성을 해명하는 일이다. 근대적 주체

29) 위르겐 하버마스, 「근대의 시간 의식과 자기 확신 욕구」,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371-372면.

30) 앞의 책, 374면.

는 진보와 소외된 정신을 동시에 경험하는 세계 속에 던져져 있다. 그러므로 근대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근대에 대한 비판과 같은 기원을 가진다. 즉, 근대적 주체가 근대성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근대성 비판을 병행해야 한다.

김기림은 근대적 주체에 필연적인 근대성 비판을 ‘문명비판’이라는 소박한 의미로 이해했다. ‘지성의 힘’으로서의 건강성이 실제 생활과 역사에 중점을 두고 시 제작과 비평을 이끌어 나갈 때, 김기림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무엇보다 문명비판을 들었다. “오늘의 시인에게 요망되는 ‘포즈’는 실로 그가 문명에 직면하는 것이다.” 엘리어트는 시를 현대 문명의 「황무지」 속에 끌어내 오기는 하였으나 방대한 현실에 압도되어 “충실한 ‘카메라’와 같이” 근대 문명을 반영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김기림의 비판이다. 그리하여 김기림은 문명에 대한 “군센 비판”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근대적 시인의 참된 자세라고 보았다. “새로운 시대의 사고는 새로운 표현양식을 요망한다.”³¹⁾ 그리고 이러한 문명비판의 정신에 가장 적합한 시적 표현양식이 바로 ‘새타이어’라는 것이다.

아무리 반시대적인 藝術일지라도 자연발생적으로는 시대의 어느 부분적인 病症일망정 대표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시 속에서 詩인이 시대에 대한 해석을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는 벌써 批判이 나타난다. 나는 그것을 文明批判이라고 불렀다.

이 批判의 정신은 어느새에 ‘새타이어’(풍자)의 文學을 胚胎할 것이다.³²⁾

그런데 ‘새타이어’가 문명비판의 예술에 적합한 기법인 이유는 우선 새타이어가 인텔리겐차에게 고유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부터 김기림은 자신을 포함한 문학적 자의식을 지닌 일군의 지식인 작가들을 인텔리겐차라는 계급으로 특징지어 왔다. 1931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朝鮮日報』에 연재된 「인텔리의 장래-그 위기와 분화 과정에 대한 소 연구」에서

31) 김기림, 『김기림 전집 2』, 158면.

32) 앞의 책, 157면.

김기림은 자본주의 문화의 위기를 인텔리겐차의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자본주의 문화의 담당자로서의 인텔리겐차가 자본주의 발전의 위에 수행한 임무는 매우 큰 것이었다”고 슬회한 다음, 인텔리겐차가 “현단계에서 한 개의 위기로서 나타났을 때 그것은 역사적·사회적 연관에 있어서 어떠한 특질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필연적 운명으로서 도래하는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그 彼方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³³⁾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인텔리겐차는 부르주아 계급의 반려자이자 대변자로서 자신들이 지닌 기술적 혁명성을 아낌없이 제공했으나,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혁명성을 거세당하고 새로운 지배자 계급으로 부상한 부르주아에 예속된 형태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이제 그들은 소부르주아지로서 노동자로서는 최상의 노동 조건에 관여하고 자본의 소유자로서는 최저의 노동 조건에 관여한다. 이러한 인텔리겐차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 김기림은 “그의 가슴에는 두 개의 정신이 살고 있다”고 썼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인텔리겐차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의외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근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됨에 따라 인텔리겐차는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경제적으로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와 의식은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와는 동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인텔리겐차들은 “희랍 문화의 난숙기에 나타난 일군의 ‘소피스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김기림에게 이러한 “인텔리겐차’의 위기는 그것의 모체인 사회의 문화의 전면적 위기와 분리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김기림이 자신이 속한 인텔리겐차 계급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제시한 길이 무엇이었는가 중요하다. 김기림은 이에 대한 해답을 1935년 1월 『朝鮮日報』에 연재한 「新春의 朝鮮詩壇」에서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중’이라는 개념은 ‘대중과 시민계급(여기서의 의미는 ‘부르주아계급-필자주)의 두 편으로 명료하게 구별’되었다고 밝히고, ‘대중’을 다시 “저급하고 무의식적이며 생물학적”인 ‘속중’과 “의식적인

33) 김기림, 「인텔리’의 장래-그 위기와 분화 과정에 대한 소 연구」, 『김기림 전집 6』(『朝鮮日報』, 1931. 5. 17~24.), 24면.

고급의 층”인 ‘의식적인 대중’으로 나누고 있다.³⁴⁾ 그리고 인텔리겐차가 이제까지의 소부르주아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의식적인 대중’의 생활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만이 진보적 인텔리겐차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았다. 김기림은 시인, 즉 인텔리겐차가 새로이 의식적인 독자 대중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 본래의 혁명성을 회복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 모순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³⁵⁾

인텔리겐차로서의 시인이 문명비판의 시를 쓸 때에 적합한 시적 기법을 김기림은 ‘새타이어’라고 보았다. 그는 1933년에 이미 「수필·불안·‘카톨리시즘’」에서 정직한 인텔리겐차의 문학으로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 예견했다. “1. 현실도피의 문학. 2. ‘새타이어’(풍자)의 문학.”³⁶⁾ 그리고 “현실도피의 문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현실 도피라는 태도는 너무나 진실한 한 개의 비극”이며, 이와는 다르게 “현실을 붙잡고 몸부림할 용기는 감히 없으나 현실의 싸움터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변환하는 현실의 모순·추악·허위·가면에 대하여 차디찬 조소를 퍼붓는 문학 - ‘새타이어’의 문학이 이 나라에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1935년의 「午前의 詩論」(기초편 속론)에 이르면, 김기림은 상술한 새타이어의 본질인 조소를 ‘분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애상, 비탄, 啼泣, 절망, 단념”과 같은 이전 시대의 감상성을 “허무의 나라 밑에서 길러난 얼마나 병약한 병든 병아리들이나”고 비판한 뒤, 이러한 감상성에서 더 진보된 건강한 자세로 예의 ‘조소’를 들고 있다. “어떠한 시대고 간에 그 시대의 ‘새타이어’의 文學의 근저를 흐르고 있는 저류는” 조소이다. 文明에 대한 이 조소야말로 새타이어의 본질이다. 그러나 김기림은 조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적극적인 ‘분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소로부터 시작해 분노로 나아가는 새타이어만이 “다음 순간에 가질 행동의 준비자세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행동에의 가

34) 김기림, 「新春의 朝鮮詩壇」, 『김기림 전집 2』(『朝鮮日報』, 1935. 1. 1~5.), 357면.

35) 김유중, 앞의 책, 66면.

36) 김기림, 「수필·불안·‘카톨리시즘」, 『김기림 전집 3』, 112면.

능성을 가지고 있다.”³⁷⁾ 이렇게 ‘조소’가 ‘분노’로 바뀌어 분출될 때에야 비로소 전체로서의 시는 문명을 비판하고 전환시키는 새로운 힘과 행동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러므로 ‘새타이어’는 김기림이 당대의 현실과 역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변화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한 명의 인텔리겐차로서 인식하기 시작할 무렵 선택한 능동적인 시적 기법이었던 것이다.

4. 결론

1930년대는 한국 문학의 근대성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여러 시인과 작가들이 서구의 모더니즘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학 속에 근대성에 대한 자각을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자각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진행된 근대화가 본격적인 삶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1930년대는 농촌 공동체와 유교 사상이라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세계관이 와해되고 이 땅에 새로운 근대성이 형성되던 시기였다. 문제는 전통의 와해와 근대의 형성이 일본 제국주의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급격히 수행되었다는 데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적 근대성은 서구 중심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보편성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황이라는 특수성 사이의 갈등과 긴장 속에 놓여 있었다.

김기림은 1930년대 내내 서구 중심의 보편적 근대성에 대한 추구로 일관했던 모더니스트이다. 그는 1930년대 시문학이 극복해야 할 전통으로 20년대의 낭만주의의 센터멘탈리즘과 프로문학의 편내용주의를 내세웠으며, ‘전체 시론’에 이르면 심지어 영미 모더니즘의 신고전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1935년에 집중적으로 저술된 「午前の 詩論」을 통해 김기림이 발전시킨 독자적인 시론의 핵심은 바로 시적 태도로서의 ‘건강성’과 시적 기법

37) 김기림, 「午前の 詩論」(기초편 속론), 『김기림 전집2』(『朝鮮日報』, 1935. 6. 4~20.), 177면.

으로서의 ‘새타이어’이다. ‘건강성’은 그가 이전 시단의 낭만주의자들과 프로문인들의 공통된 문제점이라 여겼던 ‘감상적 낭만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력이었고, ‘새타이어’는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문명비판의 시에 그가 판단한 가장 적합한 기법이였다.

김기림에게는 모더니스트로서 부정해야 할 규범적 전통조차도 서구로부터 유입된 전통이었다. 이러한 김기림의 특성은 1930년대 한국 시문학이 서구 보편을 지향할 때 나타나는 관념적 근대성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 당대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김기림 문학의 관념성은 1930년대 우리 근대성의 식민지적 특수성이라는 현실을 몰각하거나, 혹은 세계사적 보편성의 흐름 속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한 그의 범세계주의적 인텔리겐차로서의 자의식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김기림은 일제 강점기 한국적 근대성을 세계사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한 모더니스트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기림, 『김기림 전집 1-詩』, 심설당, 1988.
- _____, 『김기림 전집 2-詩論』, 심설당, 1988.
- _____, 『김기림 전집 3-文學概論/文學評論』, 심설당, 1988.
- _____, 『김기림 전집 6-文明批評·時論·設問答·科學概論』, 심설당, 1988.
- _____, 「詩에 있어서의 技巧主義의 反省과 發展」, 『조선일보』, 1935. 2. 10. ~ 3. 14.
- _____, 「오전의 시론」(제1편 기초론) - 『조선일보』, 1935. 4. 20. ~ 5. 2.
- _____, 「오전의 시론」(기초편 속론) - 『조선일보』, 1935. 6. 4~20.
- _____, 「오전의 시론」(기술편) - 『조선일보』, 1935. 9. 17. ~ 10. 4.
- 임 화, 「曇天下의 詩壇 一年」, 『신동아』, 1935. 12.
- _____, 「技巧派와 朝鮮詩壇」, 『중앙』, 1936. 2.

2. 단행본 및 전문

- 강은교, 「1930년대 김기림의 모더니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 구모룡, 「식민성 근대주의의 한 양상」, 『문학수첩』, 2005년 여름호.
-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 김윤식, 「전체시론」,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 _____, 『한국문학의 근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1993.
- 김학동, 『김기림 연구』, 시문학사, 1991.
- 류보선, 「중심을 향한 동경 : 한국근대문학연구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 한국근대문학회, 2000. 4.

-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일지사, 1988.
- 송 욱, 『시학평진』, 일조각, 1963.
- 이광호, 『미적 근대성과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1.
- 이창배, 『20세기 영미 시의 형성』, 민음사, 1979.
- Adorno, Th. W., & Horkheimer, M.,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001.
- Berman, Marshall, 윤호병, 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2004.
- Calinescu, Matei, 이영욱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3.
- Giddens, A., 임현진 역, 「탈전통사회에서 산다는 것」, 임현진, 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88.
- Hegel, F.,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1』, 지식산업사, 1988.
- 姜尙中, 이경덕,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Abstracts】

A Study for Kim Gi-rim's 「Poetics of Morning」

Bae Ho-nam

Nineteen thirty-five was the year when Kim Gi-rim had a big change in his literary works. This study focused on 「Poetics of Morning」 which were serialized in the 『Cho-sun Daily』 in 1935. Through the 「Poetics of Morning」, Kim Gi-rim tried to find a way to escape from his attitude of regardless acceptance of western modernism in the 1920s, and searched for his own poetics which were related to colonial reality in Korea in the 1930s.

Kim Gi-rim was a modernist who consistently tried t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Korean modernity and universal modernity by western forces. He criticized both sentimentalism by romanticists and social realism by Marxists in the 1920s under the name of 'Sentimental Romanticism'. The core of Kim Gi-rim's Poetics in Poetics of Morning」 is a 'Healthy attitude' as poetic attitude and 'Satire' as poetic technique. 'Healthy attitude' as poetic attitude was the effort of overcoming 'Sentimental Romanticism' which romanticists and Marxists commonly had in the 1920s. 'Satire' as poetic technique was the appropriate technique for the poetry of criticizing modern civiliz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Kim Gi-rim, 「poetics of morning」, modernity, sentimental romanticism, total poetics, debate of craftsmanship, healthy attitude, satire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